

四年制 看護大學에 관한 調査研究 (I)

—入學動機 및 教育課程에 대한 反應調査—

〈이화간호대학〉 학 영 수

I. 緒論

최근 看護教育 특히 大學看護教育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質的으로는 물론 量의 으로 우리와 社會가 요청하는 有能한 專門職看護員 (professional nurse) 을 길러내고, 또 看護學生들에게 看護에 필요한 特殊한 知識과 能力와 態度와 人格과 價值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길러주어야 하느냐가 中心의 關心인 것이다.

과거 看護教育은 正規教育課程이 아닌 看護員養成 (1903년에 시작)¹⁾ 이었고 또 看護教育專門家가 아닌 他分野의 專門家들에 의해 담당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달된 科學의 知識 특히 現代醫學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하여 看護education 또 한 놀라운 발전을 가져 왔다. 더욱이 수년전부터의 政府施策에 의한 祖國近代化運動에 따라 人力이 동원되었고 이어 國民의 保健問題가 강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968년 12월 16일) 看護大學이 梨花女子大學校와 延世大學校에 각각 認可新設되었으며 또한 看護學校의 數가 증가되고 看護學生의 數가 증원되었다. 그러나 한편 海外로 진출하는 看護員의 數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資格看護員의 需給問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社會의 要求와 看護員自身들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看護education의 計劃과 運營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또 質的으로 우수한 看護員을 길러낼 수 있

느냐는 당면한 重要課業인 것이다.

이에 看護大學 機能中 가장 핵심이 되는 看護學生들와 入學動機와 教育課程에 대한 反應의 實態를 把握 究明하여 大學看護education方針에 寄與코자 함이 本研究의 目的인 것이다.

II. 研究資料 및 方法

4年制 看護大學에 관한 本調查研究(I)는 1968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1~4학년 100명),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1~4학년 100명),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1~4학년 100명), 카톨릭 醫科大學 看護學科(1~4학년 100명) 등 4개 大學 看護學科 在學生 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대부분 문제만 주고 자필로 기술케 하였음)를 실시한 결과 그중 392명의 응답을 얻어 그結果를 分析 觀察하였음을 第一次 報告하는 바이다.

〈표 1〉 간호학과 입학 동기

입 학 동 기	실수	%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97	24.7
외국을 쉽게 갈 수 있으므로	89	22.7
안정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서	66	16.8
여러 사람이 원해서	64	16.3
자기의 특수한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	33	8.4
취업이 잘 되므로	22	5.9
창의력과 득창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10	2.5
학교의 전통이나 평판이 좋아서	7	1.7
기타*	4	1.0
계	392	100.0

* 특별한 동기없이 입학한 예

1) 李永福 看護史 서울 譜文社 1968 p. 174

III. 結果 및 考察

1. 看護學科에 入學하게 된 動機

<표 1>에서 외 같이 在學生 392명의 (梨大, 延大, 서울大, 카톨릭大) 看護學科 入學動機별 조사를 보면 他人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24.7% (97명)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外國을 쉽게 갈 수 있으므로」가 22.7% (87명)로 비교적 많았다. 그외 「安定된 未來를 내다볼 수 있어서」(16.8%), 「여러 사람들이 원해서」(16.3%), 「自身의 특수한 能力과 適性에 맞아서」(8.4%), 「就業이 잘 되므로」(5.9%), 「創意力과 獨創性을 발휘할 수 있어서」(2.5%), 「學校의 傳統이나 평판이 좋아서」(1.7%), 기타 「특별한 動機 없이」(4%) 등의 순위로 적었다.

한편 Oleson과 David²⁾가 65명의 看護大學 新入生(美國)을 대상으로 看護專門職의 特徵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있어도 「人類를 위한 奉仕職(dedicated service to humanity)」「職業保障(job security)」「獨創性과 創意力を 발휘할 수 있는 職業(originality & creativity)」등이 그외 여러 가지 다른 특징(他人으로 부터 존경받는 직업, 規律이 確立되어 있는 직업등) 보다 많았음을 本著者의 연구결과와 大同小異하였으나, 특히 本研究에 있어서는 근래에 와서 海外進出이라는 새로운 경향 및 동기가 비교적 많았음(22.7%)은 특기할 사항이었다.

要컨데 看護本職을 하겠다고 看護學科에 입학한 학생들이 예나 지금이나 또는 國제적으로 큰 차이없이 많았으나, 그중 특히 졸업후 海外로 진출하여 선진국에서 좀 더 배우겠다는 새로운 경향 및 동기를 가지고 입학해 오는 학생들의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수들이 이점에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은 물론 모든 看護學科出身(學士看護員)을 外國으로 보내겠다는 또는 外國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大學教育인 만큼 특히 語

學教育을 비롯해서 外國風習 내지 民俗 歷史 등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함으로 그들이 外國에 갔을 때 좋은 民間大使로서의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뒷받침해 줄 教育方針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2> 간호학과 입학을 처음 고려한 시기별분포

입학을 생각한 시기	실수	%
고등 학교 시절	322	81.0
중학교 시절	30	9.0
국민학교 시절	16	4.0
유치원 시절	4	1.0
어렸을 때	6	1.5
※기타	14	3.5
계	392	100.0

* 마지막에 갑자기 입학을 결정한 예(1.5%)와 부모들이 권해서 진학을 결심한 예(2.0%)

2. 看護學科 入學을 처음 고려한 時期

간호학과 입학을 처음 생각한 시기별 조사<표 2>에 의하면 全體學生(392名) 중 대부분(81%)이 高等學校 時節에 간호학과에 입학할 것을 처음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高校時節에 누구나 다 大學入學에 대해 생각하고 嘗攻分野를 결정하게 되는 소치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외 中學校時節이 전체학생의 9%(30명), 國民學校 時節(4%), 어린 時節(1.5%), 유치원 時節(1.0%) 등의 순위였고, 나머지 약

<표 3> 진학에 영향을 준 인물의 분포

영 향 언 들	실수	%
아 버 지	25	6.8
어 머 니	79	20.0
친 친 칙	24	6.2
친 구	45	11.4
의 사	58	14.7
간 호 원	46	11.7
학 교 선 생	46	11.7
독 사	9	2.2
기 타 (본인 의사)	60	15.3
계	392	100.0

2) Virginia L., Oleson & Fred David, "Baccalaureate Students Images of Nursing" Nursing Research, 15:2, N.L.N., 1966, p. 151.

3.5% (14명)는 「갑자기 결정」했거나 혹은 「부모 친척들의 권유」로 마지막에 굽히 간호학과에 입학할 것을 결심한 예들이었다.

3. 看護學科 入學을 最後로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준 人物

<표 3>에서와 같이 간호학과의 입학을 最終的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가 전체 학생수의 20% (79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 15.3% (60명), 「醫師」가 14.7%, 「看護員」이 11.7%, 「학교선생」이 11.7% 및 「친구」 11% 등도 비교적 많았으나, 그외 「아버지」(6.8%) 「친척」(6.6%) 등은 少數였다. 또한 「牧師」에게 상의하는 예는 비교적 적었다(2.2%).

이와 같이 간호학과의 입학을 최후로 결정짓는데 있어 어디까지나 未成年인 學生의 입장에서 「어머니」라는가 그외 다른 既成人에 의해 영향됨은 마치 그들의 모든 일의 결정이 家庭에서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것과 같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

4. 바람직한 人間看護員

이것은 題目(選多式 質問이 아닌)만 주고 自筆로 제공된 채로를 분석 관찰한 것이다.

학생들이 표현한 이상적인 인간간호원을 보면 「敎養이 풍부하고 理性的인 간호원이어야 한다」가 전체학생의 약 43% (168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指導者の이면서 奉仕의인 간호원이어야 한다」가 35% (137명), 기타 「사랑이 풍부하며 친절한 간호원이어야 한다」가 (20.4%) 등 원만한 人格形成과 敎養을 지닌 知性人으로서의 간호원이어야 한다가 비교적 많았음을 특이하였다. 그외 「事務的이고 能率의인 간호원(0.7%) 및 正直한 간호원(0.5%), 「看護技術이 좋은 간호원」(0.5%)등은 극소수였다.

要컨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理性的이고 樞性的이며 내지는 친절한 간호원 등 역사 人間性에 치중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

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自己任務에 忠實한 간호원」이 전체학생 중 180명으로 약 46%에 해당되었으며, 그 다음 「理解心이 풍부한 간호원」이 (24.2%) 「奉仕精神이 왕성한 간호원(15.5%) 등도 적지 않았다. 그외 「判斷性 있는 간호원」(4.1%), 「謙遜한 간호원」(3.7%), 「正直한 간호원」(2.5%), 「간호기술이 좋은 간호원」(2.3%), 「公正한 간호원」(1.2%), 「事務的인 간호원」(0.5%) 등의 순서로 적었는데, 한편 간호기술에 대해 중요시 하지 않는 점은 의외였다.

5. 看護教育의 目的

이것도 題目만 주고(選多式 質問이 아닌) 自筆로 제공된 채로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理想으로 하는 간호교육 목적 중 「眞實하고 人間性이 풍부한 人格者로서의 간호원을 육성하는 것이다」가 전체학생의 39.2% (10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患者를 도와줄 수 있는 能力과 科學的으로 간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가 15.5% (61명)로 비교적 많았다. 그외 「自己任務에 충실하고 信賴感을 받을 수 있는 간호원을 배양하는 것」(10.9%), 「實生活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實際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8.9%), 「看護事業 및 看護教育의 質的의 向上을 도모하는 것」(7.3%), 「疾病의 預防과 國民保健增進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涵養케 하는 것」(7.1%) 등을 비롯해서, 「學術의이며 能率의인 간호원을 육성하는 것」(4.8%), 「간호원으로서의 自負心과 自治性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能力を 기르는 것」(4.8%), 「個性있고 獨創力있는 간호원을 육성하는 것」(3.8%), 「明郎하고 親切한 간호원을 길러내는 것」(3.8%), 「사랑과 敎養이 풍부한 간호원을 육성하는 것」(2.8%) 등의 순서로 적었다.

要컨대 간호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이 간호교육의 목적을 바로 理解하고 있다고 본다. 즉 Sand³⁾에 의하면 간호교육의 목적은 첫째 좋은 人性을

3) Ole Sand, *Curriculum Study in Basic Nursing Education*, New York: G. P. Putnam's Sons, 1955, pp. 25~29.

소유한 教養 있는 간호원을 길러내는 것, 둘째 看護員의 業務遂行을 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 셋째 다른 직업인들과의 相互依存性을 이해시키고 직업인으로의 책임감을 기르는 것, 넷째 책임있는 公民으로서의 간호원을 육성하는 것, 다섯째 간호원으로서의 人格(特殊資質)을 陶冶케 하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 또한 李⁴⁾는 「대학의 교육目標에는 책임 있는 공민으로서 갖춰야 할 공통적인 行動特徵과 아울러 專門人으로서 지녀야 할 有用하고 價值 있는 知識과 態度와 技能이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大學의 教育目的을 한마디로 學問(智)의 발전과 사회가 요청하는 指導的人物(德)을 육성하며 健康生活(體)에 기본이 되는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看護教育의 中心的 關心이 되는 것은 專門職看護教育(professional nursing education)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專門職看護員을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길러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民主教育의 理念 또는 基督教의 人間像”을 기초로 하여 ㄱ) 看護員으로서의 人格을 陶冶케 하며 ㄴ) 看護業務遂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看護의 科學의 知識의 획득 및 看護능력을 體得(arts of nursing) 시킴으로 有能한 看護職業務人을 육성해 내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진실(眞)하고 착(善)하고 아름다운(美) 여성으로서의 간호원을 길러내고, 사회의 요구에 敏感하게 反應함으로 그려한 사회적 요청에 맞는 간호원 내지 간호사업에 필요한 지도적 인물을 길러낼 수 있고 동시에 건전한 체육을 단련함으로 전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등은 어느 나라에서도 대등소이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간호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構成運營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논할 바 없으나 그러나 그와 같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행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과 교육방침 내지는 교과과

정 외에 입학동기에서 나타난 해외진출 혹은 海外活動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경향을 학교와 교수들이 참작하여 졸업 후 그들이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設施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중 先決問題로 外國語會話(spooken language)의 實質적인 訓練이 절대 필수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표 4> 현재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불만족에 대한 분포

만족 불만족	실수	%
매단히 만족하다	23	5.8
만족하다	77	19.6
그저 그렇다	170	43.3
불만족하다	105	27.0
단대히 불만족하다	13	3.3
무응답	4	1.0
계	392	100%

6. 現在의 大學生活에 대한 滿足, 不滿足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 392명 중 100명(25%)이 현재의 大學生活에 「만족하다」(19.6%), 「매단히 만족하다」(5.8%)고 표현하였으며, 반대로 「불만족하다」(27%), 「매단히 불만족하다」(3.3%)고 표현한 학생수는 118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30%로 전자보다 약간 많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한편 현재의 학교생활이 「그저 그렇다」는 즉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수도 170명(전체학생의 약 43%)으로 비교적 많았다.

1) 現在의 大學生活에 滿足하는 理由 :

이것도 題目(選多式 質問이 아닌)만 주고 自筆로 제공된 재료를 분석 관찰한 것이다.

현재의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학생(100명)들은 보통 한가지 이상의 滿足理由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그중 「본인이 원하고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과목을 전공할 수 있고 따라서 본인이 발전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 등 學科目에 대한 滿足이

4) 李榮德 “大學教育課程運營의 原則과 方法”, 教育課程研究報告 第1號, 梨大 教育課程委員會, 1963.
p. 7.

<표 5>

대 학 生 활 의 만 족 이 유

만 족 이 유	실 수	만족총수에 대한 비율	전체수에 대한비율
학과목에 대한 만족 (원하는 과목을 전공 38 취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공부 32)	61	61%	15.6%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 (원만한 교우관계 11 안정된 생활 12 가족적인 분위기와 바람직한 대학 생활 3)	26	26%	6.6%
교육수준에 대한 만족 (높은 교육수준 2 똑같은 교육 22)	24	24%	6.1%
학문에 대한 만족 (여성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문 23)	23	23%	5.9%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 (충분한 교육시설 23)	11	11%	2.8%
학습 경험에 대한 만족 (의욕적인 경험 3 용이한 학습경험 1)	4	4%	1.0%
단체 훈련에 대한 만족 (기숙사 생활을 통한 단체 생활 훈련)	3	3%	0.8%

61% (全體學生數의 15.6%)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 「大學의 시설이 좋고 또 大學에서의 원만한 생활 분위기가 좋아서」 등 주로 大學施設과 大學生活에 대한 滿足(26%), 「똑같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다른 學科에 뭇지 않는 높은 水準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등 教育水準에 대한 滿足(24%), 「여성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문을 배움으로」 등 學問價值에 대한 滿足(23%), 「學習 분위기가 좋고 의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서」 등 學習經驗에 대한 滿足(4%) 및 寄宿舍생활을 통한 단체생활에 대한 滿足(3%) 등 주로 학생들이 成就하려는 動機와 社會的 특히 情緒的 要求와 必要가 충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5>

2) 現在의 大學生活에 대한 不滿足理由 :

이것 역시 題目(選多式質問이 아인)만 주어 自筆로 제공된 內容을 綜合分析해 본 것이다.

<표 6>에서와 같이 전체학생 392명 중 118명 (30%)이 현재의 大學생활에 不滿足하고 있는데

이들의 불만족한 이유를 보통 한가지 이상의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공부의量이 너무 많고 힘들며 잠시에 시간 때문에 똑같은 생활 혹은趣味生活을 할 수 없어서」 등 學習分量에 대한 不滿이 49% (全體學生數에 비해 14.8%)로 首位였다.

이와같은 불만은 간호학과의 學習分量이 他學科(文學)에 비해 광범위하다는 自體보다는 根本적으로 高等教育과 真理를追求하겠다는 大學敎育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 起因된다고 본다.

그 다음 「大學 또는 병원의 교육시설이 不完, 全해서 등 教育施設에 대한 不滿(24.9%)과 「실습교육이 학생을 위한 것인지 병원을 위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고 배우는 것이 불충분하다」 등 實習敎育에 대한 不滿(24.9%)과 「학습내용이 충복되는 것이 많고 반면에 전혀 학습하지 않는 학과목이 있으며 체계적인 학습경험을 할 수 없다」 등 學習經驗不足에 대한 不滿(22.8%) 및 「大學의 생활 분위기와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표 6>

대 학 生 활 률 만 족 의 이 유

불 만 이 유	실 수	不滿종수에 대한 비율	全體종수에 대한 비율
學習分量에 대한 不滿 (과중한 학습시간 31 취미 생활 결핍 27)	58	49.0%	14.8%
實習教育에 대한 不滿 (학의적인 실습 교육 목적 17 비과학적인 실습 2 불충분한 실습 6 과중한 실습시간 4)	29	24.9%	7.4%
教育施設에 대한 不滿 (불완전한 교육시설 21 불충분한 병원시설 8)	29	24.9%	7.4%
學習經驗에 대한 不滿 (체계적인 학습경험 결여 8 불안전한 교양교육 4 이론과 실제의 불균형 5 학습내용의 중복 2 교과 과정의 불충분한 계획 8)	27	22.8%	6.9%
大學生活에 대한 不滿 (억압된 분위기 8 원만하지 않은 교수관계 7 들에 박힌 생활 6 진지하지 못한 생활 분위기 3)	24	20.3%	6.1%
教育水準에 대한 不滿 (저조한 교육수준 20 학문의 특창성 결여 4)	24	20.3%	6.1%
一般認識 결여에 대한 不滿 (간호학에 대한 인식부족 11 간호원에 대한 인식부족 11)	22	18.6%	5.6%
職業教育 特殊性에 대한 不滿 (직업교육에 과도한 치중 3 과중한 학습시간 6 이론 사회 경험 10)	19	16.0%	4.9%
教授에 대한 不滿 (교수들의 평균 6 공정치 못한 평가 2 학생과의 거리감 9)	17	14.4%	4.3%
教授資質에 대한 不滿 (교수진의 불충분한 학보 8 자질부족 5)	13	11.0%	3.3%
어긋난 기대에 대한 不滿 (실망 16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2)	18	15.1%	4.6%
學科自에 대한 不滿 (작성에 맞지 않는 科目 12)	12	10.1%	3.1%
教育制度에 대한 不滿 (3년제 교육과 차이가 없어서 5 의욕없는 교육제도 4)	9	7.6%	2.3%
기 타 (책임감과 열등감 2 특별한 이유없이 2)	4	3.2%	1.0%

입박된 분위기가 싫어서 등 大學生活에 대한 不滿(20.3%) 등의 순위였다.

그러나 한편 現實의으로 경제문제도 있겠으나 가능한 한 학생들의 학습의욕에 충족되도록 大學 또는 附屬病院의 시설을 完備하도록 教育行

政家들이 注力할 것을 再強調하는 바이다.

또한 臨床實習教育의 重要性에 대한 강조와 나아가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實習指導를 함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직업을 위한 特殊內容에 더욱 흥미를 갖게하고 그 標準에 준한 여

려 가지 特性을 具備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이 다시금 강조되는 바이다.

한편 Brown⁵⁾과 鄭⁶⁾은 學習經驗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素質이나 興味問題를 活用해야 하며 교수들은 학생들의 教育的必要(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과 교육이 바라는 이상적인 표준과의 간격)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時代的 社會의 要求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貨習교육 자체에 대한 뒤미결여 및 효과적인 실습지도 방법의 결점에서 오는 不滿을 해소시키기 위해 臨床敎育은 가급적 大學에서 배운 教科內容의 進度에 맞춰서 쉽고 간단한 경험에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경험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시키고 점차 학생들이 自立的으로 患者看護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도함은 물론 한가지 실습을 하는 중이나 끝난 후에 성취감을 갖게하고 더욱 흥미와 自信을 가지고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줌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유나 조건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그러한 실습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다는 意慾을 계속해서 갖지 않으면 그 결과는 별로 기대할 것이 못되며 오히려 학습에 대한 흥미마저 잃어버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앓고 병들어 있는 환자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간호의 本職으로 할것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환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간호학생들이 실습기간중 간호업무가운데 어떤것은 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그러한 실습활동을 하기 싫어해서가 아니라 왜(why) 해야 하는지를 理解하지 못해서 오는 폐단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實習指導教授들은 학생들의 이와같은 心理狀態를 잘 파악하여 實習活動중 어떤것은 하는일 자체가 친한 일

이라고 학생들이 혹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하는 일이 얼마나 환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킴으로서 이런 부문에 있어서의 폐단을 없이해야 한다고 본다. 이어 간호학과 1학년에 입학하면 앞으로 간호본직을 이행하는데 基礎가 되는 특히 社會心理學, 그中에서도 看護心理學, 哲學 등을 교육시킴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責任 있는 公民으로 길러짐과 아울러 看護員의 特性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외 「간호원에 대한 一般認識을 달리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水準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學問의 獨創性이 결여됨으로」등 教育水準에 대한 不滿(20.3%)과 「간호원에 대한 일반 사회인식이 不足됨으로」등 간호교육에 대한 一般의 인식 결여에 대한 不滿(18.6%) 및 「大學敎으로서의 순수한 생활을 할 수 없고 다른 學科와 달리 일찍 사회경험을 함으로」등 看護敎育 특수성에 대한 인식 不足에서 오는 不滿(16%) 등이었는데, 이것은 과거(특히 日帝時代) 간호교육이 고등교육화하지 못했고 따라서 일종의 병원 부속강습소에 불과했었던 어디까지나 後進性으로의 예전 觀念에서 시작한 그릇된 社會의 一般認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外國처럼 직업의 귀천이 없이 간호학도 하나의 獨立된 高等敎育課程 내지는 科學으로서 더욱 발전된다면, 그리고 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보다 많은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면 그와같은 그릇된 一般社會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직업 혹은 전문적敎育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내지는 소위 직업귀천에 대한 어긋난 사회상의 개량이 요청된다고 본다.

기타 「기대에 어긋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不滿」(15%)과 「교수와 학생 간에 거리감을 갖게 되고 교수들의 편견 내지는 차별이 있어서」등 看護敎授에 대한 不滿(14.4%)과 「教授陣의 확보가 불충분하고 교수진이 우수하지 못해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다」는 교수자질에 대한 不滿(11

5) Amy Frances Brown, *Curriculum Development* Philadelphia & London. W. B. Saunders. Co., 1960, pp. 132~170

6) 鄭範模 敎育課程 서울:中央敎育出版社 1963, pp. 277~427

%) 및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목을 택했음으로 적응하기 困難하다」는 學科目에 대한 不滿(10%) 등의 순위로 석었다. 교수로서 학생에 대한 偏見을 가질 리 없겠으나 그러나 학생측이 그렇게 느낀다면 교단에 서는 교육자로서는 학생과의 人間關係에 있어 역시 留意할 점이 아닌가 再強調된다. 또한 현재의 교수진의 상태에 대해 논한다는 것 보다는 적어도 우수한 교수가 될 수 있는 後輩養成 내지는 확보하는데 대한 어떤 새로운 對策을 두고 長期的인 계획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적성에 맞지 않는 學科를 택했음으로 不滿하다」는 數는 不滿總數에 비해 과히 많지 않았다(10%).

그외 「의욕없는 학교제도가 싫고 간호학과 교과과정이 3년제 간호학교의 것과 差異가 없어서」 등 教育制度에 대한 不滿(7.6%)과 「책임감과 열등감 때문에 간호학 공부를 하기 싫어서」(1.6%) 및 「특별한 이유없이 不滿(1.6%)」이다」 등의 순서로 不滿의 정도가 달랐다. 그러나 한편 「간호학과 교과과정이 3년제 간호학교의 것과 차이가 없어서 不滿이다」고 한 것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점은 역시 社會的으로 대학출신 간호원에게 우선적으로 首看護員의 資格대우를 하는 등의 특전을 필요로 하며, 또한 養護教師資格自動 획득에 대한 철저한 실천과 再確認이 필요하다고 본다.

7. 轉科하고 싶은 科目

재학생 392명 중 254명(74.8%) 즉 過半數가 간호학을 전공으로 잘 택했다고 표현하였으며, 나머지 138명(35.2%)은 반대로 간호학을 전공으로 잘못 택했다고 반응했는데, 이를 간호학을 전공으로 잘못 선택했다는 학생들의 轉科希望을 보았더니 한 학생이 반드시 한 가지 學科目만을 선택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중 文學으로 전학할 의향이 30% (전체 학생수의 10%)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 心理學(24.6%), 醫學(21.7%), 社會學(18.8%), 自然科學(15%), 外交學(12%), 歷史學(10%), 教育學(10%), 圖書學(9%), 藥學(8%), 社會事業(7.9%), 家政學(6.5%), 秘書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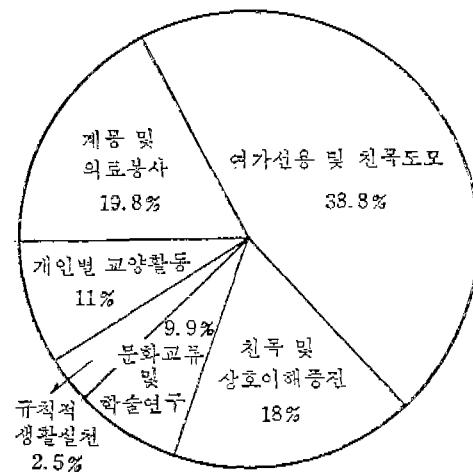
(4.3%), 數學(2.8%), 經濟學(2.8%), 神學(2.8%), 體育學(2%), 政治學(1.4%), 視聽覺教育藝術(1.4%), 藝術(1.4%), 音樂(1.4%), 地理學(0.7%), 등 그 선택범위가 다양하였다.

8. 課外活動의 參與

현재 과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在學生數는 全體學生(392명)의 약 절반(203명)으로 51.7%였고, 한편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있는 學生數는 189명으로 前者보다 약간 적었는데(48.3%), 이것은 一般大學의 경우 크럽活動 參與率이 전체 학생의 19%에 불과한데 비해 훨씬 많은 경향이 있다⁷⁾.

또한 이들 203명의 학생들이 판여하고 있는 活動分野를 보면 <표 7>에서 나타낸 것처럼 크럽활동을 통한 (體育 19.8%, 音樂 10%, 미술 3.5%, 등산 3.0%, 서예 2.5%, c c club 2.5%, 오락 2.0%, 영어회화 1.0%) 餘暇의 善用 및 친목활동이 38.8%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 계동 및 의료봉사활동(19.8%) (대한 적십자 천년 봉사회 8.5%, 밀알보임 8.0%, c c club 1.8%, 九九회 1.5%) 相互理解의 증진 및 親睦圖謀(18%) (대한 기독교 여자 청년회 8.0%, 카톨릭 학생회 8.0%, 주일 학교 반사 2.0%) 個人別敎養活動(11%) (무용 3.0%, 풋풋이 3.0%, 영어회화 3.0%, 피아노 습득 2.0%) 문화교류 및 學術活動(9.9%) (대한 간호학생회 5.4%,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회 2.5%, UNSA 1.5%, 국제학생

<표 7> 課外活動分野分布



7) "大學生活의 모뉴망, 본교생의 크럽활동 質態", 梨大學報, 1968.

회 0.5% 및 girl scout) 활동을 통한 규칙적 생활실천 (2.5%) 등 광범위하였음은 흥미 있었다.

IV. 結 論

서울地區 4개大學(梨大, 延大, 서울大, 카톨릭 醫大) 看護學科 在學生 총 392명 (1학년 100명, 2학년 92명, 3학년 100명, 4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入學動機와 教育課程에 대한 反應의 調査研究 (第一次報告)를 綜合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看護學科 入學動機中 他人을 돕기 위한 것 (봉사)이 약 25%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海外進出을 위한 것 (22.7%)이 時代의인 特색으로 보였다. 그 다음으로 職業保障을 위한 것 (16.8%) 등이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海外進出을 효과적으로 협조해 주기 위한 對策 특히 外國語會話의 現實的인 춥득 및 民間大使로서 필요한 各國風俗, 習慣, 歷史에 대한 이해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大部分 (81%)이 大學入學에 임박한 高等學校時節에 간호학과 진학을 결정하였고, 中學校 및 國民學校 時節등 어린 시절부터 결심한 학생들은 훨씬 적었다 (4%). 또한 최종 간호학과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은 역시 어머니가 主動的이었고 (20%), 다음으로 本人의 意思 (15%) 및 醫師 (14.7%)도 비교적 영향이 커다. 그의 看護員 (11.7%) 학교선생 (11.7%) 및 친구 (11%) 등도 있었다.

3) 이상적인 인간간호원이란 約 半數 (43%)가 理性的인 看護員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은 奉仕의인 간호원 (35%), 친절한 간호원 (20%) 등이었다.

4) 학생들의 看護教育 目的을 보면 人間性 있는 看護員을 길러내는 것 (39%)을 第一로 하고 있고 技術教育 (15.5%)은 第二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5) 학생들이 표현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 현저하게 많았음 (30%)은 특히 주목되며 그 中 他學科에 비해 간호학과의 學習分量이 과중해서 趣味生活이 缺始된다 (49%)는 不滿이 제일

많았다. 이런 自家矛盾점의 시정을 위하여 大學教育의 根本理念에 대한 積極한 理解를 시키는 課程設置 (看護心理, 哲學等) 내지는 善導 (Orientation)가 우선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 大學 또는 附屬病院의 教育施設이 不充分 함으로 (24.9%) 등도 상당히 많았다.

또한 간호원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는 心的不滿이 적지 않게 (18.6%) 自己内心 발달되고 있는 점 역시 心理的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의 看護教授 (專任)의 학생에 대한 慎選내지 차별이 있다고 不滿 (14%)을 느끼는 학생들도 꽤 있었으며, 同時に 우수한 교수진이 없다고 하는 不滿도 11%나 있고 또 滯性에 맞지 않는다고 後悔한 학생들 (10%)도 있었다.

6) 看護學 전공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학생들은 全體의 약 1/3 (35%)로 많았는데, 그중 文學으로 진학희망이 30%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心理學 (24.6%), 醫學 (21.7%), 社會學 (18.8%), 自然科學 (15%), 外交學 (12%), 歷史學 (10%), 教育學 (10%) 등이 순위였다.

7) 過重한 學科目 分量을 不滿해 하면서도 반수 (51.7%)가 課外活動에 침식하고 있다는 점은 興味 있으며 그 중에도 餘暇善用 및 親睦團謀를 위한 活動이 38.8%로 중요한 것이었다.

—參 考 文 獻—

李圭煥, 教育課程 서울: 새글社, 1961.

李榮德, 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 및 實際 서울: 교학도서주식회사, 1962.

李永福, 看護史 서울: 時文社, 1968.

鄭範模, 教育課程 서울: 中央教育出版社, 1963.

" 教育評價의 原理 서울: 豊國學園, 1955.

朴光熙, "Curriculum 改善을 위한 考察(上)" 教苑 3號, 1967, p. 44

" "Curriculum 改善을 위한 考察(中)" 教苑 4號, 1967, p. 37

" "Curriculum 改善을 위한 考察(下)" 教苑 5號, 1968, p. 31

"教育課程改善을 위한 세미나" 教育課程研究報告 第 1 號, 梨花女子大學校 教育課程 委員會, 1963.

"學生指導의 新しい 姿勢와 方法" 教育資料 111號 京東 <P 31에 계속>

연구자 자신이 이용하여 평가를 얻을 것이다며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그 다음 그 연구의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IV. 끝을 맺는 말

간호연구의 절박한 필요성 즉 간호 교육이 대학교육으로서 간호전문직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변천 발전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창하는 지식 전달의 발전을 위해 또한 간호사업의 이상적 실현 및 세계의 간호학과 어깨를 겨누기 위해서, 이상과 같은 절박한 필요성 밑에서 다른 나라의 간호연구의 형편과 우리나라의 것과를 비교하여 보았으며, 간호연구의 특징을 논했고, 앞으로 한국의 간호연구가 나아갈 노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시행하는데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찾아 보았으며, 연구 결과의 이용에 대하여서 언급했다.

우리에게 당면한 간호교육문제는 오로지 연구를 통하여 타개해 나아감이 가장 진실된 을바른 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참 고 서 적

1. Vreeland, Ellwynne M., Nursing Research Program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Highlights and Trends. *Nursing Research*, 13:148 (Spring) 1964
2. Simmons, Lee W., and Henderson Virginia; *Nursing Research, A Survey & Assessment*, Appleton Contry-Corfts, New York. 1964 p 461

3. U.S. Surgeon General's Consultation Group,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P73.
4. Macgregor, Frances C.: Research Potential of Collegiate Nursing Students Developing a Research Attitude & Creative Imagination. A Preliminary Report, *Nursing Research*, 13:259 (Summer), 1964.
5. Meyer Burton and Heidgerken, Loretta E., *Introduction to Research in Nursing*, J.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62.
6. Wald, Florence S. and Leonard, Robert C.; Towards the Development of Nursing Practice Theory. *Nursing Research*, 13:309 (Fall) 1964.
7. Henderson Virginia, et al; *Nursing Studies Index* Vol. III, 1957~1959, J.B. Lippincott, Philadelphia, 1963.
8. “대한간호 목차 책인” (1962~1968)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서울, 1969.
9. 전산초, “변천하는 사회와 현대간호의 경향” 대한간호, Vol. 7. No 6, 1969.
10. 전산초, “간호사업의 문제점과 미래상” 대한간호 Vol. 8, No 2, 1969.
11. Mephetridge L. Mae, “Three Methods of Conducting a Nursing Skills Laboratory” *Nursing, Research* 17: 462~463 (Fall) 1968.
12. *Nursing Research*, 1967~1969.

<40 page에서 계속>

- 畿道教育研究所, 1968.
“學習意慾助成의 實際” 教育資料, 112號 京畿道教育研究所, 1968.
“大學生活의 모뉴망, 本校生의 크럽活動實態” 梨大學報, 1968.
“各種 크럽 및 會員名單” 梨花女子大學校 學生處 1968.
Alice B. Brethorst, *Methods of Teaching in School of Nursing*. Philadelphia & London W. B. Saunders Co., 1950.
Amy Frances Brown, *Curriculum Development*, Philadelphia & London; W. B. Saunders Co., 1960.

- Ole Sand *Curriculum Study in Basic Nursing Education*. New York: G. P. Putnams sons 1955.
Carole Donavon “Making Theory Work in Patient Care” A.J.N. 66:10 1966. p. 2204
Emily Myers & Ella Pott “An Internship for New Graduates” A.J.N. 68:1 1968.
Loren D. Pankratz & Deanna M. Pankratz “Determinants in Changing a Nursing Career” *Nursing Research* N.L.N. 16:2 1967.
Virginia L. Oleson & Fred David “Baccalaureate Students Images of Nursing” *Nursing Research*, 15:2 N.L.N. 1966, p. 151